

투습방수포 제품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의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조사

A Study on the Care Label of Vapor-Permeable and Water-proofed Fabric Clothes and Consumer's Understanding

최혜영·이정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Choi, Hae Young · Lee, Jung Sun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shing methods specified on the care labels of vapor-permeable & water-proofed fabrics and to investigate the consumers' real washing methods in their home and their cognition. In this study, the condition of care labels on 35 products was investigated and consumers' washing methods and cognition were surveyed. The subjects were consisted of majoring clothing textiles' female, female student attending in other major and married-women. Data were analyzed SPSS 10.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care labels of Vapor-permeable & waterproofed fabric products used in this survey followed the rule of KS K that is stated that care labels must include over 3 instructions. It was the most popular type of care labels to organize with washing methods, bleaching methods, weaving methods, drying methods, ironing methods.
2. Most consumers have vapor-permeable & waterproofed fabric products, but their consciousness of this fabric is low. The rate of consumer confirming the care labels was 76.6% but 67.8% of them answered they take care of textile products with their experiences.
3. Consumers' understanding of care instructions on care labels was investigated that most consumers understand domestic care instruction, but they didn't know almost all international one.

Key words : vapor-permeable waterproofed fabric, care label, KS K, cognition of consumer.

I. 서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레저

문화가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스포츠 룩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는 현대인들은 의복 착용시 쾌적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개발된 소재 중의 하나가 투습방수포이다. 투습방수포는 등산, 스키, 조깅 등의 스포츠웨어를 비롯하여 소방복,

Corresponig author : Choi, Hae Young
Tel : (042)821-6820
E-mail : 97diva@hanmail.net

다운자켓 등의 아웃웨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종래의 방수포가 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인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열에너지를 외부로 발산시키지 못해 피부표면에 땀이 차게 되어 불쾌감을 주는 반면, 새로 개발된 투습방수포는 비나 물의 침투를 막는 방수성, 발수성 및 격렬한 운동에 의한 땀을 발산시키는 투습성의 두 가지 상반된 기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어¹⁻²⁾ 스포츠웨어 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웨어는 일상적 활동복에 비해서 오염이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세탁횟수가 일반 의류에 비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따라서 의복의 형태 및 디자인 면에서 갖는 미적인 기능과 소재적 특성이 갖는 실용적 기능을 가능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취급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섬유제품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섬유 내용물이나 취급방법을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섬유 혼용율과 취급상 주의사항에 관한 레이블을 붙이도록 KS K 0021³⁾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품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사용상 주의를 상품별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상품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KS K 0021에 규정된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 기호는 물세탁 방법, 산소 또는 염소 표백의 가부, 다림질 방법, 드라이클리닝, 짜는 방법, 건조 방법의 6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취급상 주의 사항의 표시는 6종의 기호 중 3종류 이상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의 조합순서는 위에서 제시한 6종을 분류번호순으로 조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열하도록 되어있다. 기호의 표시 방법은 탈수와 건조방법의 표시여부는 표시자의 임의에 따른다고 규정짓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표백 및 다림질을 하지 않는 것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레이블의 색은 바탕을 흰 천으로 하고 표시기호는 흑색 또는 남색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X 기호는 원칙적으로 적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레이블은 유통, 사용과정에서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변색, 퇴색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재료를 써서 적당

한 크기로 보기 쉬운 장소에 봉합하거나 인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의류제품의 대부분이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섬유에 대한 적절한 취급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취급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취급표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유제품의 세탁방법 및 이와 관련된 취급방법에 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⁴⁻¹⁰⁾ 투습방수포의 세탁방법에 따른 물성 변화에 관하여 연구한 정 등⁴⁾은 투습방수포는 물세탁과 퍼클렌계 드라이클리닝보다는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세탁하는 것이 물성의 성능저하에 영향을 적게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조 등의 연구⁵⁾에 따르면 세탁 횟수가 증가할수록 촉감을 비롯하여 의복 형성 성능이 감소하지만 취급주의 표시를 따름으로써 이런 성능저하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관한 홍 등의 연구⁶⁾에서는 취급상 주의표시가 상당히 다양하고, 지나친 주의 표시가 표기되어 있어 실제 제품의 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등 제조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취급상 주의표시 부착을 지적하였다. 배 등의 연구⁷⁾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의류 제품에 부착된 취급표시 레이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적절치 않은 레이블의 부착이나, 특정기호의 표기 누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대전 YWCA 소비자 상담자료¹⁰⁾에 의하면 전체적인 세탁심의 발생건수는 해마다 늘어 1998년 보다 2001년 6월 현재 50%정도 늘어났다고 보고되어 있다. 특히 구입단계나 착용단계에 비해서 세탁단계에서의 불만 고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섬유제품의 레이블에 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급표시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업체의 관심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소재보다 더 주의가 요구되는 투습방수포 소재의 경우, 필요한 취급주의 표시 기호가 현행 규격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판되고 있는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주의표시 레이블 부착 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또한 설문을 통하여 가정에서 행해지는 투습방수포 제품의 세탁방법과 제품의 레이블에 기재된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여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투습방수포에 대한 레이블 조사는 스포츠웨어를 생산하는 브랜드 32개 브랜드에서 35개 제품의 취급표시 레이블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32개 브랜드는 -영원무역, 에델바이스, 프로스펙스, 트랙스타, 스톤, 이기, 콜럼비아, 헤드, 라피도, 동양레저스포츠, 르까프, 아시스, 리복, 나이키, 엘레제, 필라, 호프힐, 홀리데이스포츠, LOTTO, THE NORTHFACE, BLACK YAK, WHITE WOLF, EIDER, BERMUDES, MOUNTAIN, ALPIN, BLAX LAFE, TURTLE, PAC LIFE, OUTDOOR, HIGH, CAMPIA이다.

투습방수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세탁방법에 관한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대전 시내에 거주하는 의류학과와 비전공 여대생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각각 100부씩으로 설정하여 총 300부를 배포하였다. 그 중 269부를 회수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SPSS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투습방수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본 지식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탁방법을 살펴보기 위한 내용 6개 문항과 투습방수포 소재로 이루어진 의복을 소유한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의 확인여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경우, 확인하는 항목과 세탁 취급상 주의표시를 그대로 적용하는지의 여부, 또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이유를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투습방수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중심으로 27종의 취급상 주의표시 기호를 제시하여 기호를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투습방수포 소재와 투습방수포 의복의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조사

1) 투습방수포 소재의 규격

투습방수포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듀폰사의 GORETEX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의 예를 <표 1>에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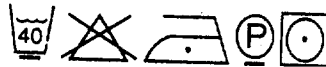
취급상 주의표시가 총 5가지 제시되었는데, 세탁방법에서는 40℃까지의 미온의 물에 기계세탁을 하되 부드러운 세탁을 하고 표백은 염색표백을 금하고 있으며 다리미질은 110℃까지의 낮은 온도에서 다리미질을 하도록 되어 있다. 드라이클리닝의 경우 석유계용제를 사용하여 낮은 온도에서 드라이클리닝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건조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기계건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투습방수포 의류제품의 취급주의 표시 실태조사

투습방수포 의류제품에서 조사된 취급상 주의표시 유형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조사된 35개의 제품들의 취급표시는 주로 4가지 이상의 방법이 조합되어 명시되어 있었으며 공산품 품질표시에서 정하고 있는 3가지 이상의 표시조건을 표기하라는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세탁방법에 관해서는 모든 제품에 1~2가지가 표시되어 있었고, 표백방법에 관해서는 두 제품을 제외하고, 다리미질 방법은 단지 한 제품만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에 표시되어 있었다. 물세탁방법, 표백방법, 짜기 방법, 건조방법, 다리미질방법의 5가지를 조합해 놓은 표시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이 5가지에 드라이클리닝

〈표 1〉 듀폰사의 GORETEX 제품에 부착된 규격의 예

Part Number : WNAX.....
 Material Content : Shell Fabric 100% PES
 Functional Layer Gore-Tex®Membrane
 Backing Fabric
 Laminate Mass : 114 g/m² Seam-Seal : 2 Layer Soft Tape
 Laminate Width : 140cm 2 Lauer Standard Tape
 Wash Care Instructions :



Lead Time : 35 Days
 Order Quantity : Minimum 185 Mts
 Normal 1,000 Mts
 Sample Lot 185 Mts

End Use Suitability :

Sailing	<input type="checkbox"/>	Hunting	<input type="checkbox"/>
Sailing Drysuits	<input type="checkbox"/>	Equestrian	<input type="checkbox"/>
Padding	<input type="checkbox"/>	Reinforcement Areas	<input type="checkbox"/>
Padding Drysuits	<input type="checkbox"/>	Fashionwear	<input type="checkbox"/>
Motorcycling On-road	<input type="checkbox"/>	Snowboarding Alpine	<input type="checkbox"/>
Motorcycling Off-road	<input type="checkbox"/>	Snowboarding Back	<input type="checkbox"/>
Motorcycling Rainsuits	<input type="checkbox"/>	X-Country Ski	<input type="checkbox"/>
Snowmobiling	<input type="checkbox"/>	Ski Uniform	<input type="checkbox"/>
Fishing Garments	<input type="checkbox"/>	All Season Mountaineering	<input type="checkbox"/>
Fishing Waders	<input type="checkbox"/>	Summer Mountaineering	<input type="checkbox"/>
Golf	<input type="checkbox"/>	Light Backpacking	<input type="checkbox"/>
Ski	<input type="checkbox"/>	Trekking/Walking	<input type="checkbox"/>
Cycling	<input type="checkbox"/>	Tent	<input type="checkbox"/>
GOW(Leisure)	<input type="checkbox"/>	Gaiter	<input type="checkbox"/>
Runing	<input type="checkbox"/>	Bivvisac	<input type="checkbox"/>

Attributies : This is a polyester Plain woven Fabric excellent softness and drape. It has low abrasion and tear characteristics which makes it suitable for the lower performance end uses such as trekking, walking, golf and streewear. Pongee can be transfer printable, but it is not suitable for use as a white laminate.







〈표 2〉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에 제시된 취급상 주의표시 유형

유형 분류	물세탁 표백 건조 다림질	물세탁 표백 짜기 건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건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짜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짜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짜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짜기 다림질	물세탁 드라이클리닝 표백 짜기 다림질	물세탁 표백 짜기	계
	빈도	2	13	4	9	3	1	1	1	
%	5.7	37.1	11.4	25.7	8.6	2.9	2.9	2.9	2.9	100




<표 3>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에 제시된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비율

분류	유형	물세탁표시만 있는 경우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둘 다 있는 경우		계
		세탁기 세탁	손 세탁 (중성세제)	물세탁과 드라이 모두 가능한 경우	물세탁만 가능하고 드라이클리닝 불가능한 경우	
빈도		5	14	13	3	35
%		14.3	40	37.1	8.6	100

<표 4>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드라이클리닝 방법의 종류

분류	유형							계
		빈도		2	8	1	1	
%		5.7	22.9	2.9	2.9	5.7	8.6	48.6

<표 5>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표백방법의 종류

분류	유형				계
		빈도		12	
%		34.3	45.7	14.3	94.3

을 겸하는 방법이 25.7%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탁방법에 대해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표시를 나타내고 있다. 물세탁 표시만 있는 경우가 54.3%를 차지하였으며, 드라이클리닝만을 표시한 제품은 없으나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을 함께 표시한 경우가 45.7%를 차지하였다. 물세탁의 경우, 세탁기세탁과 손 세탁의 두 가지로 표시하고 있으며, 손 세탁 표시의 경우 항상 중성세제표시를 겸하고 있었다.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주의표시를 함께 명시해준 제품을 살펴본 결과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한 것이 37.1%, 드라이클리닝이 불가능한 것이 8.6%으로 나타났다.






<표 4~8>은 조사된 전체 35개 제품의 레이블에 제시된 취급상 주의 표시기호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드라이클리닝 방법의 종류로 8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 중

특히 석유계 용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14개의 드라이클리닝 가능표시 중 11개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옳은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의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표백방법의 종류이다. 표백방법에 대한 표시는 조사된 투습방수포 의류제품의 94.3%로 거의 모든 제품에 표기되어 있었으나, 표백표시를 한 제품 중에서 80.0%는 염소표백을 금하고 있고, 14.3%는 염소 및 산소계 표백제 사용을 금하고 있었다.

건조방법의 종류는 <표 6>에 조사된 것과 같이 건조표시가 있는 94.3%의 의류제품 중에서 자연건조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는 71.4%로 모두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말리도록 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이 이 방법을 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6〉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건조방법의 종류

분류	유형						계
빈도		25	0	3	3	2	33
%		71.4	0	8.6	8.6	5.7	94.3

〈표 7〉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다림질방법의 종류

분류	유형							계	
빈도		9	7	8	1	4	2	1	32
%		25.7	20	22.9	2.9	11.4	5.7	2.9	91.4

〈표 8〉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서 제시된 짜는 방법의 종류

분류	유형				계
빈도		10	6	10	26
%		28.6	17.1	28.6	74.3

다. 반면에 기계건조와 관련된 표기를 하고 있는 제품은 22.9%로 그 중 14.3%가 기계건조를 허용하고 있고, 8.6%는 기계건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표 7>에 다림질 방법에 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한 제품의 91.4%가 다림질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 중 '형걸음 덮고 온도 140℃~160℃로 다림질 할 수 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았으나, 다림질 표시 온도가 80℃에서부터 160℃까지 넓은 범위로 분포하고 있었다.

<표 8>은 시판 투습방수포 제품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제시된 짜는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었다. 짜기 표시는 조사된 제품 중 74.3%의 의류 제품에서 표시하고 있었으며, 그 중 17.1%만이 약하게 짜기를 권하고 있었고 57.2%는 짜지 말도록 표시하고 있었다. 짜지 말도록 표기한 것의 28.6%가 짜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에 '약하게'라는 글씨를 써넣고 있는데 이러한 표기는 KS K에 언급되지 않은 잘못된 표기방법이다.

2. 투습방수포 취급표시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1) 투습방수포 제품의 소비자 인지도와 세탁관리 실태 조사

투습방수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표 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9.1%는 알고 있다고, 50.9%는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문인, 비전문인, 주부에 따라 투습방수포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전지역 의류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구성된 전문인은 60.4%가 안다고 응답해 가장 많이 투습방수포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다음은 주부로 조사대상 주부의 56.0%가 투습방수포를 알고 있었으며, 의류학부를 제외한 타학과에 재학중인 대전지역 학생으로 구성된 비전문인 응답자의 경우 33.0%만이 안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인지도 나타났다. 또한 투습방수포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투습방수포 의복으로 떠오르는 것을 적

〈표 9〉 투습방수포에 대한 인지도

구분 \ 빈도(%)	안다	모른다	계
전문인	58(60.4)	38(39.6)	96(100.0)
비전문인	33(33.0)	67(67.0)	100(100.0)
주부	41(56.1)	32(43.8)	73(100.0)
합계	132(49.1)	137(50.9)	789269(100.0)

〈표 10〉 투습방수포 소재 의복의 소유정도

구분	빈도	%
없다	93	34.6
1~2벌	166	61.7
3~4	9	3.3
5벌 이상	1	0.4
계	269	100.0

〈표 11〉 소유하고 있는 의복의 가격대

구분	빈도	%
10만원 이상	90	51.1
20만원 이상	56	31.8
30만원 이상	18	10.2
40만원 이상	3	1.7
50만원 이상	9	5.1
계	176	100.0

는 질문에 생활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복으로 스키복, 등산복을 대답하기도 하였지만, 설문지에 응한 많은 수의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소방복과 같은 특수복을 먼저 떠올렸다. 이러한 결과, 스포츠·아웃도어 소재로 각광받고 있고, 윈드재킷·낚시 또는 등산용 재킷 등으로 해마다 그 쓰임이 증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의 업체의 기대에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그다지 인지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투습방수포가 어떤 섬유인지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투습방수포에 대한 개념을 전달한

후에 투습방수포 소재 의복의 소유 여부를 알아보았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4%로 과반수가 넘는 소비자들이 1벌 이상의 투습방수포 의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소비자들이 투습방수포라는 섬유 그 자체에 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투습방수포가 의복으로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은 소유하고 있는 투습방수포 의복의 가격대를 나타내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투습방수포 의복은 10만원에서 50만원대로 고가의 의복으

〈표 12〉 투습방수포의 세탁관리 실태

구분	직업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		실제세탁에 사용되는 방법	
		빈도(%)	계	빈도(%)	계
손세탁	전문인	38(34.9)	109(40.5)	18(24.3)	74(27.5)
	비전문인	31(28.4)		20(27.0)	
	주부	40(36.7)		36(48.6)	
	계	1.9(100)		74(100)	
기계세탁	전문인	17(41.5)	42(15.6)	13(37.1)	35(13.0)
	비전문인	14(34.1)		11(31.4)	
	주부	10(24.4)		11(31.4)	
	계	42(100)		35(100)	
드라이클리닝	전문인	38(35.5)	107(39.8)	32(44.4)	72(26.8)
	비전문인	48(44.9)		22(30.6)	
	주부	21(19.6)		18(25.0)	
	계	107(100)		72(100)	
기타	전문인	2(25.0)	8(3.0)		0(0.0%)
	비전문인	5(62.5)			
	주부	1(12.5)			
	계	8(100)			
합계		265(100)	265(98.5)	181(100)	181(67.3)

로 나타나 세탁에 의해 손상을 받을 경우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평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¹¹⁾

<표 12>에 나타낸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들은 주로 손 세탁(40.5%)과 드라이클리닝(39.8%)을 적합하다고 보고 있었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문인의 경우는 손 세탁(34.9%)과 드라이클리닝(35.5%)을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으나, 주부의 경우는 손 세탁(36.7%)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이러한 응답은 그 동안의 세탁 경험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비전문인의 경우는 손 세탁(28.4%)과 드라이클리닝(44.9%)을 적합한 세탁방법으로 응답했는데, 비전문가 집단은 학생으로 구성되어 세탁에 대한 경험이 주부보다 적고, 투습방수포에 대한 지식이 전문인보다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드라이클리닝을 옳은 세탁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로 응답한 소비자들의 경우는 투습방수포라는 소재를 특이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변

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한 세탁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표 12>에는 투습방수포를 소유한 응답자(176명)에 한하여 실제로 어떻게 세탁하는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용되는 세탁방법은 세탁기 세탁 13.0%, 손 세탁 27.5%, 드라이클리닝 26.8%, 기타 0%로 나타났다. 실제 세탁의 경우 주부는 드라이클리닝보다 손 세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학생의 경우 전공인과 비전공인 모두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빈도가 주부보다 높았다. 여기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세탁방법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3%가 투습방수포 세탁을 위한 특수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세탁에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

<표 13>의 결과를 보면, 투습방수포를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176명)중에서 135명인 76.6%가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주부들이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을 확인하는 빈도가 40.0%로 가장 높았다. 전공자의 경우도 '꼭 확인한다' 36.3%, '확인하지 않는다' 34.1%로 나

〈표 13〉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의 확인 여부

구분	직업	빈도(%)	
		빈도	비율
꼭 확인한다.	전공자	49	36.3
	비전공자	32	23.7
	주부	54	40.0
	계	135	100
확인하지 않는다.	전공자	14	34.1
	비전공자	20	48.8
	주부	7	17.1
	계	41	100
합계		176	100

타났으며, '꼭 확인한다'고 대답한 49명중에서 40명은 '확인'은 하나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대다수가 레이블을 확인하고 있지만 <표 1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67.8%가 레이블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레이블에 대한 신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레이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대로 하지

않아도 별 손상이 없어서'로 대답한 경우는 전공자는 31.1%, 비전공자는 33.0%, 주부는 35.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레이블에 대한 신뢰정도를 조사한 전체 응답의 55.7%를 차지하였다. 주부들의 경우 레이블의 확인정도가 높은 것과 다르게 취급표시 레이블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세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그대로 하지 않아도 별 손상이 없어서' 라고 대답한 빈도가 높은 것은 그 동안

〈표 14〉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에 대한 신뢰 정도와 레이블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이유	직업	빈도(%)	
			빈도	비율
레이블 그대로 적용		전공자	24	39.3
		비전공자	15	24.6
		주부	22	36.1
		계	61	100
레이블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세탁표시가 이해가 안됨	전공자	3	33.3
		비전공자	1	11.1
		주부	5	55.6
		계	9	100
	그대로 하지 않아도 별 손상이 없음.	전공자	32	31.1
		비전공자	34	33.0
		주부	37	35.9
		계	103	100
	기타	전공자	5	41.7
		비전공자	5	41.7
		주부	2	16.7
		계	12	100
계			185	100.0

〈표 15〉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에서 확인하는 항목

구분	빈도	%
섬유 조성 표시	35	17.4
표백 기능 여부	23	11.5
세제의 종류	22	10.9
탈수 여부	18	9.0
세탁의 종류	103	51.2
계	201	100.0

〈표 16〉 드라이클리닝시 용제 구분여부

구분	빈도	%
용제를 구분한다.	4	2.3
용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172	97.7
계	176	100.0

〈표 17〉 물세탁시 세제사용 여부

구분	빈도	%
알칼리성 합성세제	55	45.1
비누	21	17.2
중성세제	46	37.7
계	122	100.0

의 실제 세탁 경험에 비추어서 레이블대로 하지 않았어도 손상이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은 제조업체가 만일의 경우 발생할 세탁사고에 대비한 지나친 주의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세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경험으로 어느 정도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표기내용을 확인하고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탁사고는 소비자 과실로서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람직한 의류 소비생활을 위하여 레이블의 내용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표 15〉의 결과에는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을 확인하는 경우 어떠한 항목을 확인하는지를 나타내었다. 확인하는 항목은 '세탁의 종류' 51.2%, '섬유 조성 표시' 17.4%, '표백 가능 여부' 11.5%, '세제의 종류' 10.9%, '탈수 여부'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탁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51.2%로 높게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표 12〉의 분류에서 볼 때, 단순히 손 세탁/기계세탁/드라이클리닝 정도의 단편적

인 구분만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를 구분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투습방수포의 드라이클리닝시 레이블의 표시에서 용제에 제약을 주는 경우가 〈표 4〉의 조사결과에서 31.5%로 나타났으나 제품을 세탁소에 맡길 때 용제를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2.3%에 불과했다.

투습방수포의 물세탁방법은 30~40℃의 물에 중성세제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단지 투습방수포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의류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표시상에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에는 손 세탁이든 기계세탁이든 거의 대부분 30~40℃에서 중성 세제를 사용하도록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수축 및 탈색에 영향을 가장 적게 미치는 온도로 적절하다고 본다.

〈표 17〉에서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소비자들이 물세탁을 하는 경우에 세제의 선택에서 합성세제 45.1%, 비누 17.2%, 중성세제 37.7%를 차지하고 있다. YWCA의 조사결과¹⁰⁾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표 18〉 취급주의 표시대로 세탁하였으나 손상된 경험의 유무

구분	빈도	%
손상된 적이 있다.	27	15.7
손상된 적이 없다.	111	64.5
계	138	80.2

〈표 19〉 드라이클리닝 후 의복 손상 경험

구분	빈도	%
손상된 적이 있다.	32	18.2
손상된 적이 없다.	143	81.3
계	175	99.5

〈표 20〉 의복의 손상된 사례

구분	빈도	%
줄어듦	13	26.5
늘어남	6	12.2
방수효과가 줄어듦	14	28.6
탈색 됨	15	30.6
기타	1	2.0
계	49	100

대다수가 일반가루세제를 중성세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성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에 따른 피해가 많다는 보고에 따라 설문 조사 당시에는 위의 세제 종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을 고려하여 각 세제의 상품명을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했다. <표 17>의 결과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주위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을 선택하거나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어떤 제품이 중성세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성세제 사용빈도가 45.1%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8>에 취급주의 표시대로 세탁하였으나 손상된 경험의 유무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취급주의 표시대로 세탁했음에도 불구하고 15.7%는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업체 측에서 제품에 적절치 않은 취급주의 레이블을 부착했거나, 필요한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기호조합과정에서 특정기호를 누락시킨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경우는 레이블에 대한

업체의 책임으로 수선·교환 및 환불조치를 받아야 한다. <표 19>에서와 같이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손상이 발생한 18.2%의 경우 취급주의표시 기호에서 특별히 언급한 용제를 사용한 경우는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무시한 경우에는 소비자나 세탁업자의 과실로 처리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세탁 후에 의복이 손상된 사례는 ‘줄어듦’ ‘늘어남’ ‘방수효과가 줄어듦’ ‘탈색 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색된 경우가 30.6%, 방수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28.6%, 의복이 줄어든 사례가 26.5%, ‘늘어남’이 12.2%, 기타의 손상이 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사례에서 보면 탈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투습방수포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시장인 스포츠웨어의 일반적인 성격상 원색적인 여러 색상의 천을 조합해서 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체에서는 염색견뢰도를 높이는 방향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표 21〉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소비자인지도

세탁표시	구분	빈도(%)			
		Y		N	
	전공자	88(32.7)	217(80.7)	8(3.0)	52(19.4)
	비전공자	73(27.1)		26(9.7)	
	주부	56(20.9)		18(6.7)	
	전공자	94(34.9)	257(95.5)	2(0.7)	12(4.4)
	비전공자	93(34.6)		6(2.2)	
	주부	70(26.0)		4(1.5)	
	전공자	75(27.9)	190(70.6)	21(7.8)	79(29.4)
	비전공자	64(23.8)		35(13.0)	
	주부	51(19.1)		23(8.6)	
	전공자	24(8.9)	50(18.6)	72(26.8)	219(81.4)
	비전공자	14(5.2)		85(31.6)	
	주부	12(4.5)		62(23.0)	
	전공자	87(32.3)	210(78.1)	9(3.3)	59(21.9)
	비전공자	71(26.4)		28(10.4)	
	주부	52(19.4)		22(8.2)	
	전공자	82(30.5)	191(71.1)	14(5.2)	78(29.0)
	비전공자	65(24.2)		34(12.6)	
	주부	44(16.4)		30(11.2)	
	전공자	94(34.9)	254(94.4)	2(0.7)	15(5.5)
	비전공자	93(34.6)		6(2.2)	
	주부	67(24.9)		7(2.6)	
	전공자	94(34.9)	247(91.7)	2(0.7)	22(8.2)
	비전공자	91(33.8)		8(3.0)	
	주부	62(23.0)		12(4.5)	
	전공자	12(4.5)	19(7.1)	84(31.2)	250(92.9)
	비전공자	4(1.5)		95(35.3)	
	주부	3(1.1)		71(26.4)	
	전공자	9(3.3)	15(5.6)	87(32.3)	254(94.4)
	비전공자	3(1.1)		96(35.7)	
	주부	3(1.1)		71(26.4)	
	전공자	3(1.1)	6(2.2)	93(34.6)	263(97.8)
	비전공자	2(0.7)		97(36.1)	
	주부	1(0.4)		73(27.1)	
	전공자	88(32.7)	233(86.6)	8(3.0)	36(13.4)
	비전공자	89(33.1)		10(3.7)	
	주부	56(20.8)		18(6.7)	
	전공자	86(32.0)	227(84.4)	10(3.7)	52(15.6)
	비전공자	82(30.5)		17(6.3)	
	주부	59(21.9)		15(5.6)	
	전공자	86(32.0)	222(82.6)	10(3.7)	47(17.4)
	비전공자	79(29.4)		20(7.4)	
	주부	57(21.2)		17(6.3)	

〈계속〉

〈표 21〉 계속

세탁표시	구분	빈도(%)			
		Y		N	
	전공자	34(12.6)	64(23.8)	62(23.0)	205(76.1)
	비전공자	11(4.1)		88(32.7)	
	주부	19(7.1)		55(20.4)	
	전공자	31(11.5)	56(20.8)	65(24.2)	213(79.3)
	비전공자	10(3.7)		89(33.1)	
	주부	15(5.6)		59(22.0)	
 (호박색)	전공자	12(4.5)	21(7.9)	84(31.2)	248(92.1)
	비전공자	4(1.5)		95(35.3)	
	주부	5(1.9)		69(25.6)	
 (호박색)	전공자	11(4.1)	18(6.7)	85(31.6)	251(93.3)
	비전공자	3(1.1)		96(35.7)	
	주부	4(1.5)		70(26.0)	
	전공자	89(33.1)	232(86.3)	7(2.6)	37(13.7)
	비전공자	82(30.5)		17(6.3)	
	주부	61(22.7)		13(4.8)	
	전공자	79(29.4)	198(73.6)	17(6.3)	71(26.4)
	비전공자	63(23.4)		36(13.4)	
	주부	56(20.8)		18(6.7)	
	전공자	84(31.2)	206(76.6)	12(4.5)	63(23.5)
	비전공자	71(26.4)		28(10.4)	
	주부	51(19.0)		23(8.6)	
	전공자	4(1.5)	10(3.7)	92(34.2)	259(96.3)
	비전공자	3(1.1)		96(35.7)	
	주부	3(1.1)		71(26.4)	
 (호박색)	전공자	3(1.1)	4(1.4)	93(34.6)	265(98.5)
	비전공자	0(0)		99(36.8)	
	주부	1(0.3)		73(27.1)	
	전공자	3(1.1)	9(3.3)	93(34.6)	260(96.7)
	비전공자	1(0.3)		98(36.4)	
	주부	5(1.9)		69(25.7)	
	전공자	2(0.7)	9(3.3)	94(34.9)	260(96.7)
	비전공자	2(0.7)		97(36.1)	
	주부	5(1.9)		69(25.7)	
	전공자	96(35.7)	256(95.2)	0(0)	13(4.8)
	비전공자	96(35.7)		3(1.1)	
	주부	64(23.8)		10(3.7)	
	전공자	95(35.3)	254(94.5)	1(0.3)	15(5.5)
	비전공자	94(35.0)		5(1.9)	
	주부	65(24.2)		9(3.3)	
	합계		269(100)		

(* 국제표시 기호)

(Y: 세탁표시를 이해한다. N: 세탁표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2) 취급상 주의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 조사

투습방수포의 레이블에 많이 표기되고 있는 취급주의표시를 소비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21>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KS K에서 준하고 있는 국내의 취급상 주의표시인 세탁기세탁, 중성세제를 이용한 손 세탁, 짜는 방법과 자연 건조하는 방법은 잘 알고 있으나, 국제 섬유제품 표시 규정에 관하여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자, 비전공자, 주부로 나누어서 취급주의 표시 이해를 어느 정도 아는지를 살펴보면, 세탁기 세탁·손 세탁·자연건조·국내 다림질 표시·드라이클리닝의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취급표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섬유제품 표시 규정에 대한 지식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건조표시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점점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조기 표시의 경우, 건조기금지 표시 7.1%, 건조기가능 표시 5.6%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으며, 호박색으로 색을 나누어 표시한 낮은 온도로 건조하라는 표시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다림질 방법의 경우도 국내의 표시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취급주의표시를 이해하고 있었으나, 국제표시의 경우는 20% 이하의 응답자만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 표시는 총 7개를 제시하였는데 응답자가 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국내표시로 석유계 드라이클리닝을 요구하는 표시(73.6%)와 드라이클리닝 금지표시(76.6%)였다. 그러나 국제표시 드라이클리닝의 경우는 이해도가 아주 낮았다. 그 중 ㉠ 표시는 의복에서 8.6% 정도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해하는 응답자는 3.3%뿐이었다. 투습방수포의 경우 수입의류가 많고 수입의류의 경우는 국외의 취급표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시장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에 소비자도 국내의 표시 기호 뿐 아니라 국제공용 표시기호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업체가 취급상 주의표시를 국내 소비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기로 바꾸거나 혹은 우리말로 된 부연설명 등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시판되는 투습방수포 제품에 부착된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의 실태 조사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시판되고 있는 투습방수 의류제품 35개를 대상으로 취급주의 표시 레이블을 조사해 본 결과 주로 4가지 이상의 방법이 조합되어 명시되어 있어 모든 제품이 공산품 품질표시 규정에서 3가지 이상의 품질주의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취급주의 표시의 유형은 물세탁 방법, 표백 방법, 짜기 방법, 건조 방법, 다림질 방법의 5가지 조합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취급상주의 표시가 상당히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고 지나친 주의표시나 잘못된 주의표시도 조사되어 제조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적절한 취급상 주의표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투습방수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조사결과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에 비해 투습방수포 제품을 소유한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투습방수포 의복을 소유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6.6%가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였으나, 그 중 67.8%가 취급주의 표시에 적힌 표시대로 세탁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레이블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투습방수포 의복제품에 실제 행하는 세탁방법은 손세탁, 드라이클리닝, 기계세탁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제품에 적절한 세탁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품의 취급주의표시 레이블에 기재된 표기사항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 정도를 살펴본 결과 KS K에서 준하고 있는 국내의 취급상 주의표시인 세탁기세탁, 중성세제를 이용한 손 세탁, 짜는 방법 및 자연 건조 방법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이해도는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제 섬유제품 표시 규정에 관하여는 거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투습방수포 의복의 경우 수입의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의류는 국제 섬유제품 표시 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의복의 형태 및 디자인 면에서 갖는 미적인 기능과 소재적 특성이 갖는 실용적 기능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취급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새롭게 인식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제품취급표시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복의 소재 및 관리표시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투습방수포 소재, 취급주의 표시, KS K, 소비자 인식.

참 고 문 헌

1. 김은애 · 박명자 · 신혜원 · 오경화. 의류소재의 이

해와 평가(1997). 교문사.
 2. 김성련(2000). 피복재료학. 교문사.
 3. 한국공업규격(1991) KS-K 0021 '섬유의 세탁방법 등에 관한 표시기호.'
 4. 정경자 · 최석철(1994). 투습성 방수포의 세탁방법에 따른 물성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674-681.
 5. 조지현 · 류덕환(2000). 투습방수 코팅소재의 반복세탁에 따른 촉감 및 봉제외관 성능의 변화-한국생활과학회지. 9(1). 33-45.
 6. 홍지명 · 신혜원(1998). 청바지의 취급상 주의표시에 관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 22(6). 716-724.
 7. 배순화 · 이미식(1994). 섬유제품의 취급방법과 관련된 레이블에 대한 연구 -소비자 인식 및 세탁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4). 480-489.
 8. 양재철. 의류제품의 취급표시 적정성. 섬유정보(1997). 25(1). 262-267.
 9. 박선경 · 홍지명 · 이정순 · 신혜원 · 유효선(1999). 유 · 아동복 레이블의 불만에 관한 연구-한국의류학회지. 23(2). 307-313.
 10. 대전 YWCA 소비자 상담자료(2001).
 11. Patty Brown · Janette Rice(2001). Ready to Wear Apparel Analysis. Prentice Hall. Chapter 3. 46-74.